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eui

약력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lecture

건축사진 촬영 포인트 - 건축을 보는 눈

건축사진은 건축을 주제로 촬영하는 일이다.

사진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건축사진은 건축을 이해해야 하는 일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른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이다.

특별하게 다른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건축사진을 그리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사진은 단지 건축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따라서 건축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로서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 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건축사진은 건축을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로 한국의 전통건축이나 세계의 현대건축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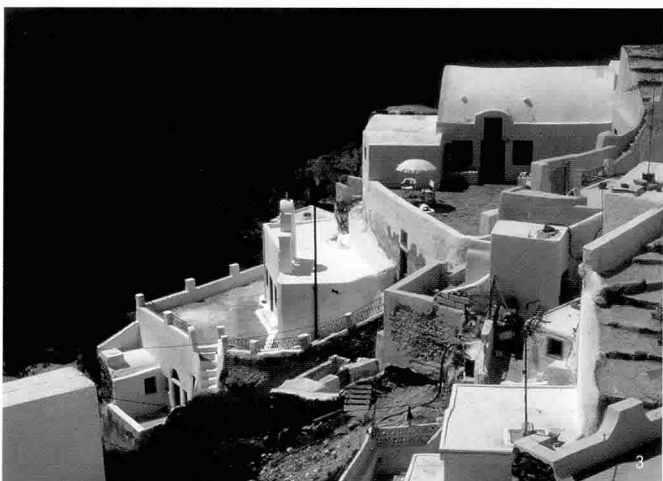
현재 우리 주위에는 현대적인 고층빌딩에서 부터 전통적인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다. 이들 서로를 다른 피

사체로 촬영하고자 할 때는 그 피사체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알맞은 촬영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접근방법이 있다.

공간

건축물들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구조나 외관이 다르다. 입체적인 건물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공간 전체를 실제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그들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지붕이나 벽, 마루, 천정 등을 통해서 그 건축공간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사진은 바로 이러한 가시적인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추상적인 공간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을 이해하는 능력은 사진가에게 있어서 사진의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1. 판테온의 돔 2. 디테일 3. 에게해의 하안집 4. 르 코르뷔제의 빌라 사브와

양감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물의 볼륨감을 그대로 사진으로 재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큰 지붕을 가진 사찰들이 사진에서는 보잘것없는 크기로 찍히거나 이와는 반대로 좁은 실내가 실제보다 훨씬 넓게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올바른 건물의 양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해서 알고 있는 사물을 같은 화면에 담아서 그와의 대비를 통해 건물의 실제의 볼륨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질감

건축물에는 구조체에서부터 마감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재료가 가진 질감의 묘사는 건축물의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건축 재료에는 나무나 돌을 비롯해서 벽돌, 스테인드글라스,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유리 등 다양한 소재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 재료의 질감을 사진에서 정확하게 재현해 내는 일은 건축물 전체를 바르게 전달해 주는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5~7. 찰스크레아의 자이푸르 미술관

디테일

건축물들은 각기 다른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건축물들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디테일은 특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 사진으로 표현하는 일은 사진가의 역할이다.

마감 재료들에 따른 건축물들의 표현 방법 중에 세부 묘사는 얼마든지 찾아서 만들어 줄 수 있다.

연출

건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으로 구성된 엮음 사진의 형식이 가장 적합하다. 입체적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말이나 글로서는 어느 정도 건축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건축사진

은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면이나 아름다운 부분들이 사진가가 찾아내서 그것을 영상언어로서 표현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건축의 장점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 건축사진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건축계획이나 설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투시도와 구성

투시도란 한 시점에서 바라다 본 물체의 입체적인 형태를 평면상에 재현시킨 도면을 말한다.

건축물들은 외벽에 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건물 내,외부의 구조와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투시도가 재작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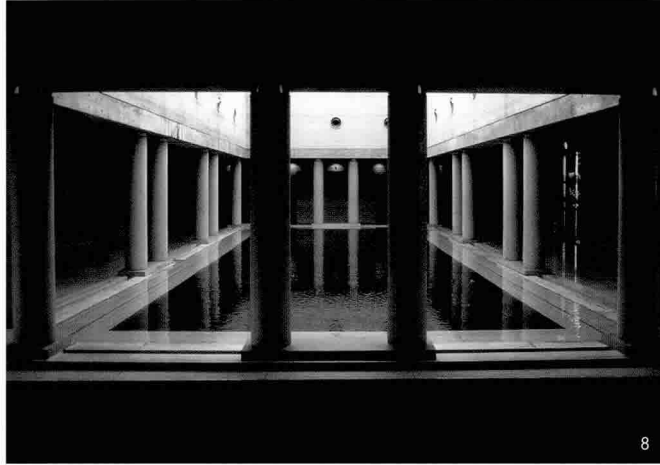
구성은 선과 형태와 색채와 빛, 명암과 질감과 문양 등의 시각적인

균형을 형성해 주는 요소이다. 건축물들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초고층 빌딩에서부터 소주택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규모가 다를 뿐 아니라 오랜 전통을 갖는 사원, 민가 등 외관도 여러 가지로 모두가 평면이 아닌 입체로 되어 있으며 외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은 전체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다.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마당이나 마루, 천정, 벽, 지붕 등은 바라볼 수 있지만 이러한 입체적

인 공간을 평면상으로 재현해 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건축사진은 사진이라는 평면위에 그 입체감과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공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촬영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상인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콘트라스트와 리듬, 반복들을 잘 관찰하고 건축사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는 일이다. ㉡



8



9



10

8. 후쿠오카 미술관의 중정 9. 르 코르뷔제의 라 투레트 수도원의 중정 10. 르 코르뷔제의 라 투레트 수도원의 전경